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이 보육교사들의 응급상황 대처 의지 및 지식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First Aid Training Program on Child Care Teachers' Coping Intentions and Knowledge in the Case of Emergency Situations

이승훈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Seung-Hoon Yi(centurydiver@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프로그램이 응급상황 대처 지식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응급처치교육 요구 내용을 분석하여 보육교사들의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승급교육을 받는 보육교사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과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원인이었다. 둘째,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응급처치지식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들이 희망하는 응급처치교육의 형태는 실습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들이 희망하는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화상처치와 체온 관련 증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고, 응급처치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이어야 하며, 응급처치 교육 내용은 보육교사들의 요구를 기초로 구조화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보육교사 | 응급처치교육 | 응급상황 | 대처의지 | 응급처치 지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rst aid programs(FAP) on the knowledge and will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and to suggest the effective FAP for child care teachers by analyzing the needs of FA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9 child care teachers who received upgrading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teachers have a willingness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and child care teachers who were not able to do were caused by the burden of legal liability and lack of confidence in first aid techniques. Second, teachers who received FAP showed higher knowledge about first aid knowledge. Third, the type of FAP desired by the child care teachers showed the most favored type of whole practice. Fourth, the contents of FAP desired by child care teachers were CPR, airway obstruction, burn treatment and temperature related symptoms. In this study, FAP is needed in the process of child care teacher training. FAP should be practice-oriented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FAP should be structured based on the needs of child care teachers.

■ keyword : | Child Care Teacher | First Aid Education | Coping Intentions | Emergency Situations | First Aid Knowledge |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접수일자 : 2019년 04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5월 15일

수정일자 : 2019년 05월 14일

교신저자 : 이승훈, e-mail : centurydiver@ut.ac.kr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1]. 그러나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환경을 탐색하면서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발달의 시기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근육과 소근육의 조절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에 의한 안전의식 부족과 함께 교사들의 경험부족, 가정 내에서의 교육 부족이 영유아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기 사망 주원인은 빈곤으로 인한 전염병이나 영양장애와 같은 건강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주된 아동기 사망의 원인으로 바뀌고 있다[3].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예방의식과 사고에 대처하는 생활응급의 보급 및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4]. 이런 결과로 2017년 통계청[5]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287명, 215명, 19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6]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2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영아기 때 ‘주택’에서 학령기로 갈수록 ‘교육시설’,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도로 및 인도’ 등 실외 장소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7]. 이러한 변화는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들의 생활 반경이 가정에서 보육기관이나 유치원 등의 교육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안전사고’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일과 운영 중에 당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8].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상해가 생긴다는 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나 때에 따라 의료적 처치에 해당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재활 및 치료비 배상과정에서 원만한 처리와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9]. 아동들의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적 장애나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보호하는 보육교사에게 응급처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특히, 안전지식과 안전행동의 관계성은 높아 현장에서의 민첩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10]. 또한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이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에서 보육교직원의 책무 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의 양성은 사범계학과와 비사범계학과에서 대면교육을 통해 양성되거나 원격교육을 통한 사이버 강의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자격 취득이 가능한 개방형 교과목 이수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과정을 통해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 등 3개 영역에서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12]. 이런 개방형 교과목 이수제는 보육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사에게 필요한 소양 함양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등 교원양성학과에서는 모든 교사들에게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과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 한 가지가 응급처치교육이다. 사범계학과에서는 양성과정에서 교과교육과정 이외에 직접적인 실습인 응급처치교육을 양성과정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

교원양성학과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교원양성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 실습 등을 이수하지 않고 양성된다. 김의향 등[1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자의 출신학과는 사회복지과(42.6%), 유아교육과(23.1%), 기타학과(13.0%), 보육학과(8.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보육관련 교과목 중 아동안전관리, 아동건강교육 등 안전과 관련한 2개 과목을 미개설한 학과는 각각 60.4%, 28.4%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보육교사 양성 인원 중 다수가 비사범계열 학과에서 양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 실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응급처치와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보육시설의 안전 관리와 시설적 측면에 대한 연구[14-17]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관련 실태[18-20] 또는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식[21-28]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선미, 조민순[22]은 보육교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사고유형에 따른 응급처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경력이 적은 보육교사들일 수록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알고 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손복영, 김호인[24]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이 낮고, 교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응급처치 교육요구에서는 이론보다 실기적인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호[25]는 유치원 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최종학력에 따라 응급처치 지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응급처치 지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황지영, 오은순, 조근자[11]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및 교육요구도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이 대체로

낮았으나 응급상황 경험이 있는 경우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수행자신감이 낮은 응급처치 항목과 교육요구도가 높은 응급처치 항목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에서 실습기반의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서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습기반 응급처치교육이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상황 대처 지식과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보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응급처치교육의 요구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연구하여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응급처치 실습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응급처치교육의 개선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프로그램 이수가 응급상황 대처 지식과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보육교사들이 받은 응급처치 교육 내용과 요구하는 응급처치 내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양성과정에서 받은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과 요구하는 내용 및 실제적 적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받는 교사들로 선정하였다.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력교사들이 대상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S시에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받는 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대상들 중 답변 내용이 불성실한 11명을 제외하고 159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선미[26]와 이지선[3]이 보육교사의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관련 6문항,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지식을 측정 관련 19문항, 응급처치교육의 현황과 실태 관련 7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총 3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설문지는 유아교육 전공 교수 1명과 응급처치학과 전공 교수 1명, 보육시설장 2명에게 자문을 얻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인적 사항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적은 1문항과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문항 중 내용이 중복되는 2문항의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적 배경 5문항, 응급처치교육 현황 6문항, 응급처치방법 실태 19문항 등 총 30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분	항목	문항수
일반적 배경	연령, 학력, 경력, 자격, 양성과정 중 응급처치 이수	5
응급상황 대처에 미치는 영향	재직 중 응급처치 교육, 교육형태, 희망연수 형태, 연수 내용, 대처의지 및 이유, 현장요구 응급처치교육 내용	6
응급처치 교육 실태	출혈(2문항), 코피(1문항), 낙상·추락(2문항), 화상(2문항), 기도폐쇄(질식)(2문항), 골절·염좌·탈골(2문항), 음독(1문항), 의식소실(1문항), 경련(1문항), 체온(1문항), 치아 손상(1문항), 벌레물림(1문항), 구토(1문항), 딸꾹질(1문항)	19
전체		30

3. 자료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분석과 응급처치교육이수에 관한 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급처치 교육에 따른 대처의지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 연령은 40대 이상이 45.3%(72명)이었고 20대가 27.7%(44명), 30대가 27%(43명)이었다. 근무경력은 5년에서 7년 사이가 64.8%(103명)이었고 7년 이상이 17%(27명), 1년에서 3년 사이가 9.4%(15명), 3년에서 5년 사이가 8.8%(14명)이었다. 교육수준은 3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이 44%(70명)이었고 2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이 38.4%(66명), 온라인 교육을 통한 보육교사 취득자가 13.2%(21명)이었고,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은 4.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상은 65.4%(104명)이었고 받지 않은 대상은 34.6%(55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N)	백분율 (%)	항목	빈도 (N)	백분율 (%)		
연령	20대	44	27.7	근무 경력	1년 이상 -3년 이하	15	9.4
	30대	43	27.0		3년 초과 -5년 이하	14	8.8
	40대 이상	72	45.3		5년 초과 -7년 이하	103	64.8
	소계	87	100		7년 초과-	27	17.0
					소계	159	100
양성 과정	온라인 과정	21	13.2	응급 처치 교육 이수	이수	104	65.4
	전문대학 (2년제)	61	38.4		미이수	55	34.6
	대학교 (3년이상)	70	44.0		소계	159	100
	석사학위 이상	7	4.4				
	소계	246	100				

1. 응급처치교육이 응급상황 대처에 미치는 영향

1.1 응급상황 시 대처의지

보육상황에서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교육 이수 여부가 대처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처 의지가 없는 교사들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보육상황에서 응급처치 상황이 발생하면 70.4%(112명)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9.6%(47명)가 대처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이수하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응

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47명은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라고 응답한 보육교사가 61.7%(29명)이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38.3%(18명)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응급처치 상황 시 대처의지와 이유

항목		적극적 대처		비적극적 대처		x ²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n=159)	있다	74	71.2	30	28.8	.074
	없다	38	69.1	17	30.9	
항목		빈도		백분율		
비적극적 대처 이유 (n=47)	법적책임 부담	18		38.3		
	자신감 부족	29		61.7		

1.2 응급상황 시 대처지식

본 연구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교사들과 받지 않은 교사들 간에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지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분석하였다. 19개의 응급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답한 사람에게는 1점을 부여하고 적절하지 않은 답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0점을 부여하였다. 분석결과 교원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은 평균 12.46점을 획득하였고,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은 11.04점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대처 지식 비교

항목		N	M	SD	t	p
응급처치 이수	이수	104	12.46	3.528	2.088	<.05
	미이수	55	11.04	5.000		

2.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교육 실태

2.1 응급처치교육 실시 형태와 요구 형태

보육교사들이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직 중 받은 응급처치교육의 연수형태를 알아보았다. 연수형태는 전체 이론 교육, 이론 교육 및 참가자 전체 실습 교육, 이론 교육 및 참가자 일부 실습의 형태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보육교사가 희망하는 효과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연수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들은 이론 및 참가자 전체 실습 형

식의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40.9%(65명)이고, 전체 이론으로만 구성된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는 36.5%(58명), 이론 교육과 참가자 일부 실습 형식의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22.6%(36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연수형태는 69.2%(110명)가 이론 교육과 참가자 전체 실습 형식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이론 교육은 9.4%(15명)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응급처치교육 연수 형태 및 요구 형태

항목	내용	N	%
응급처치 교육 형태	전체 이론 구성	58	36.5
	이론 교육 및 부분 실습	36	22.6
	이론 교육과 전체 실습	65	40.9
항목	내용	N	%
희망하는 응급처치 교육 형태	전체 이론 구성	15	9.4
	이론 교육 및 부분 실습	34	21.4
	이론 교육과 전체 실습	110	69.2

2.2 응급처치교육 실시 내용과 요구 내용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교육 내용을 조사하고,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응급처치교육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14개 항목을 제시하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내용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육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급처치교육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6.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용과 교육요구 내용

응급처치교육 수강 내용	응답자		응급처치교육 요구 내용	응답자	
	N	%		N	%
심폐소생술	159	33.8	심폐소생술	133	24.9
출혈대처	16	3.4	출혈대처	26	4.9
낙상·추락 대처	15	3.2	낙상·추락 대처	10	1.9
화상 대처	21	4.5	화상 대처	97	18.1
기도폐쇄(질식)	103	21.9	기도폐쇄(질식)	123	23.0
골절·염좌·탈골 대처	21	4.5	골절·염좌·탈골 대처	8	1.5
중독(음독) 대처	9	1.9	중독(음독) 대처	2	0.4
의식소실 대처	14	3.0	의식소실 대처	7	1.3
경련 대처	36	7.7	경련 대처	36	6.7
체온 관련 증상 대처	30	6.4	체온 관련 증상 대처	81	15.1
치아손상 대처	11	2.3	치아손상 대처	4	0.7
벌레물림 대처	13	2.8	벌레물림 대처	6	1.1
구토 대처	16	3.4	구토 대처	2	0.4
딸꾹질 대처	6	1.3	딸꾹질 대처	0	0
합계	470	100	합계	535	100

분석결과 보육교사들이 응급처치교육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내용은 심폐소생술(CPR)로 응답자 159명이 모두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는 기도폐쇄에 대한 내용(103명)이고, 세 번째는 경련 발생 시 대처방법이었다(36명). 반면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133명)과 기도폐쇄(123명)가 역시 높게 나타났으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화상처치(97명)와 체온 관련 증상(81명)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교육은 실제 상황과 동일한 실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자신의 응급처치 자신감 부족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이유로 대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육길나, 최경, 연혜민 [27]과 김진호, 허린강[10]의 연구와 같이 응급처치교육은 지속적이고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을 통해 숙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6월 개정된 '응급의료인에 관한 법률' 중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면책에 대한 홍보는 보육교사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 다양한 경로로 보육교사가 양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면교육 관련 규정에서 교원양성과정과 같이 교직소양과목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면교육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대

면교육 과목은 9개 교과목으로 아동안전관리가 응급처치교육에 해당되지만 대면교육이 곧 실습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보육교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지식은 발달특성 상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영유아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보육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보육교사는 1차적 사고 대처자로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아야 더 큰 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상황, 지역 보육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보육환경과 지방의 보육환경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 지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황지영, 오은순, 조근자[11]의 연구와 도 지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육길나, 최경, 연혜민[27] 연구결과에서 보육교사들이 요구하는 응급처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런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보육현장이 아동이라는 동일 대상을 보육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1일 3-4시간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처치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는 많은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이 희망하는 응급처치교육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교육은 다른 응급처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보육교사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은 지속적인 실습과 반복을 요하는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교육과 함께,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단계화하여 순환식 구조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응급처치 교육은 황지영, 오은순, 조근자[11]이 주장한 수행자신감이 낮은 응급처치 항목과 교육요구도가 높은 응급처치 항목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은 보육교사들이 모든 응급처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시의 응급교육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S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응급처치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역 또는 도·농 지역을 구분한 다양한 보육 환경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응급처치교육이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대처 지식에 미치는 영향과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태도와 요구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연구결과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교육 이수와의 관계없이 모두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영, 손복영, 김호인[24]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둘째,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보육교사들보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지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교육 강의 이수와 안전에 관한 인식이 정적인 관계라는 김수향[2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되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교육이 소규모·실제적 교육으로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양성과정이 아닌 직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이론교육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와 이론교육 및 일부실습, 이론교육 및 전체실습의 형태이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응급처치 교육 요구에서는 이론보다 실기적인 부분들을 원하고 있다는 이지영, 손복영, 김호인[2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황지영, 오은순, 조근자[11]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부족의 원인이 일회성 교육이라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넷째,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 교육이 기본적인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에 머물지 않고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으로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화상처치와 체온 관련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운반법,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법, 내과적 응급처치(고열, 열성경련, 복통, 구토)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황지영, 오은순, 조근자[11]의 연구, 별레 물림, 고열, 구토 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육길나, 최경, 연혜민[27]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채혜선, 임미혜, 김종배, 이순자, 안경일, *아동안전관리*, 서울: 양서원, 2016.
- [2] 정인숙,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3] 이지선, *보육교사의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 문은주, “부모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5]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18.
- [6] 한국소비자원, *2017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한국소비자원, 2018.
- [7]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아이사랑 종합공제 약관*,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3.
- [8] 정기현, 라승용, 윤종기, 조종목, 박두용, 한창희,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 [9] 강정원, 이옥임,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갈등과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제22권,

- 제4호, pp.219-243, 2018.
- [10] 김진호, 허린강, “유아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제96권, pp.219-235, 2016.
- [11] 황지영, 오은순, 조근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및 교육요구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234-243, 2016.
- [12] 손유진, 전윤숙, “일본과 한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양성 체제 분석,” 일본근대화연구, 제54권, pp.509-523, 2016.
- [13] 김의향, 신나리, 민희민, 이형민, “보육교사 2급자격 취득자의 교과목 이수 실태 조사,”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5호, pp.53-76, 2010.
- [14] 이수재, 이진숙,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2권, 제1호, pp.1-15, 2006.
- [15] 진미화,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방안,” 한국복지실천학회지, 제6권, 제2호, pp.264-280, 2015.
- [16] 박애경, “수원시 보육시설의 실내·외 놀이영역의 안전실태조사,” 한국보육학회지, 제5권, 제1호, pp.57-73, 2005.
- [17] 이율이, 이완정, “아동 보호권의 관점에서 본 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현황과 문제점,” 아동과 권리, 제8권, 제3호, pp.481-500, 2004.
- [18] 김정훈,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차이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177-196, 2010.
- [19] 김소윤, 김유진,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실태 및 교사 인식과 요구,” 아동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pp.89-103, 2015.
- [20] 김해림, “보육시설에서의 안전 사고 실태 조사,” 아동연구, 제9권, pp.133-146, 2003.
- [21] 김인정, “보육시설 안전교육·안전사고 실태와 담임 교사들의 안전교육 범위와 방법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14권, 제4호, pp.125-136, 2012.
- [22] 이선미, 조민순,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7권, 제4호, pp.55-80, 2010.
- [23] 이효철, 장용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9-29, 2010.
- [24] 이지영, 손복영, 김호인, “영유아 응급처치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및 요구도,” 영유아보육연구, 제3권, 제1호, pp.45-63, 2010.
- [25] 이재호, “유치원 교사의 응급처치지식에 관한 실태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1호, pp.27-43, 2018.
- [26] 이선미,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7] 육길나, 최경, 연혜민,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pp.242-248, 2017.
- [28] 김경란, 오재연, 박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요소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응급상황 안전지식과 수행수준 인식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4호, pp.177-204, 2018.
- [29] 김수향,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개념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pp.443-465, 2016.

참 고 문 헌

이 승 훈(Seung-Hoon Yi)

종신회원



- 1997년 2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3년 2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특수교육, 교육공학, 멀티미디어